

Raonatti 10th in Cambodia



- ACTIVITIES
 - SAR & Emergency Kit
 - YD Activity
 - CD Activity
 - Annual Retreat
 - YMCA Youth Camp
- Change
- Learning
- Reflection

- SAR & Emergency Kit



- SAR & Emergency Kit



• SAR & Emergency Kit

- 캄보디아의 핵심 파트 중 하나인 재난관리 및 긴급구호 활동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
- 한국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
- 긴급구호 활동을 할 때 까리따스가 정부기관과 잘 연계되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
- 캄보디아 홍수 피해에 대해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
- 교육을 받으면서 참가자들과 같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었다

- YD



• YD



• YD

- 유스 센터의 학생들은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
는데 아띠들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
해 고민을 많이 했다
- 유스 학생들과 의미 있는 외부 활동들을 많이 참여 할 수
있었다
- 유스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 지역 자영업자
들과 유스 센터와 잘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
-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언어적, 생활적
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

• YD

- 수업일정이나 여러 다른 상황들이 유동적이라 아띠들이 모를 때가 많았다
- 교육과정이 끝날 시기여서 학생들이 취직을 하거나 취업을 위해 센터를 떠나게 되면서 활동이 흐지부지 되었다
- 교육과정을 끝마치고 센터를 떠날 때,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
- 처음 수업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텝들과의 협력이 힘들었다

- CD



• CD



• CD

- CD활동을 통해 마을개발활동에 대해 배우고 캄보디아 마을의 문화와 여러가지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
- Caritas에서 진행하는 마을개발사업으로 인해 마을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
- 마을개발사업들 중에서도 농사라는 일부분만 보고,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
- CD 주간회의나 월간회의를 통해서 서로 다른 Community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
- 마을 농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(따께오)

• CD

- 2014년의 큰 사업인 CD와 YD통합 통해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할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
- Youth센터와 마을에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여러 연령대를 고루 만날 수 있었다
- 마을에서 아띠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과 관계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
- 언어적 한계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자주 만났던 Key farmer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다.

- Annual Retreat



- Annual Retreat



• Annual Retreat

- 활동이 겹치치 않아 많은 교류가 없던 다른 깐달지역 스텝들과 또 다른 지역의 스텝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
- 캄보디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인 캄뵁섬(시하눅빌)에 가게 되었다
- 까리따스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을 알 수 있었고,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
- 까리따스에서 하는 연례회를 어떻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
- 리트릿 이후 관계가 친밀해 짐에 따라 활동 하는데 있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

- YMCA Youth Camp



- YMCA Youth Camp



• YMCA Youth Camp

-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더 꼼꼼히 되돌아 볼 수 있었다.
- 캠프를 진행하면서, 아띠들이 전부터 봐오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.
- 캠프를 준비할 때,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면 더 좋은 캠프가 되었을 것 같다.
-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소통에 있어서 까리타스측과 YMCA와 아띠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.
- 매일 저녁마다 나눔을 할 때, 정해진 양식으로 나누는 것보다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.

• YMCA Youth Camp

- 미리 까리따스에서 마을을 지원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학생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, 덜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.
- 유선단원도 캠프를 함께 준비를 했지만, 아파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..
- 아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시아 친구와 함께 활동하며 아띠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좋은 소통의 기회였던 것 같다.
- 아띠들이 관계를 맺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,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었고, 학생들과 마을 농가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한 것 같아서 좋았다.
-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청년들을 함께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.

- Changes (Center)



• Changes (Center)

- 유스 센터 내에 수로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였다
- YD와 CD 사무실이 합쳐지고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
- 센터 내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였다
- 유스 센터 내,외부에 CCTV를 설치하였고, 가드를 세워 보안이 강화되었다
- 함께 몇 달 동안 지냈던 유스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센터를 떠났고, 새로운 유스들이 들어왔다
-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,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유스들이 많아졌다

- Changes (Village)



• Changes (Village)

- 관계를 맺고 있던 농가에 새로운 집을 짓고 있다
- 활동했던 버섯농가에 버섯 살균찜통과 화장실이 새로 바뀌었다
- Shed를 두 농가와 함께 짓고, 작물을 함께 심었다
- Shed안에 새로운 작물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
- 수원,이천Y 유스들과 함께 양계농가에 닭장을 지었다
- 마을에서 영어수업을 하며 마을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도록 도왔다
- 기후가 우기에서 건기로 변하면서, 마을에 땅이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

• Learning

- 현지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현지 스텝들, 마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
- 캄보디아의 역사, 문화, 정치상황 등을 접하고 알 수 있었다
- 캄보디아에 많은 친구들과 가족이 생겼다
- 캄보디아의 여러 농법과,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
- 언어, 마음가짐, 관계의 변화로 인해 스텝들과 소통하는데 좋은 변화가 있었다

• Learning

- Caritas를 통해 다양한 국적,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
- 현지 NGO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
- 회의나 Reflection을 통해 아띠들이 직접 활동하지 않아 알지 못했던 부분들, 잘 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
- 캄보디아 청년들의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
- 캄보디아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,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

- Self-Reflection

